

조선/기계 Daily

2021. 8.27(금)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easpan Corp gears up to order 24 containerships in \$2bn China splash

Seaspan이 중국 CSSC 신하 4개 조선소에 7,000TEU급 중형 컨테이너선 최대 24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도됨. 24척 중 10척은 이중연료, 14척은 재래식 선박임. 2024년부터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Tanker scrapping on track to reach second highest level in a decade, Clarksons says

2021년 탱커 폐선이 10년래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1,970만DWT가 폐선되며 3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2019년부터 감소한 바 있음. 올해 8월 중순 기준 7,200만DWT가 폐선됨. VLCC 기준 스크랩 가격은 2020년 6월 1,200만달러에서 현재 2,600만달러로 상승함. (Tradewinds)

Hunter predicts 'scramble' for VLCCs next year as oil supply crunch looms

노르웨이 Hunter 그룹은 VLCC 수요가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Opec+가 감산 완화를 결정하며 2021년 하반기에도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2021년 VLCC 폐선량은 6척 밖에 되지 않으며, 선대의 20%는 15년 이상의 노후선박임. (Tradewinds)

불법 운송으로 VLCC시장 왜곡

VLCC가 제재대상인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하며 합법적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VLCC가 타격을 받고 있음. Euronav에 따르면 아직 50여척의 불법운항선박이 운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中 조선, 후판값 급등에 선가인상 가속화…캄사르막스 20%↑

중국 조선소가 벌크선 신조선가의 인상을 가속화함. 다롄선박중공업(DSIC)는 최근 8,200T급 캄사르막스 벌크선 2척을 수주했는데, 건조계약 당시 선가는 3,100만달러였지만, 현재 3,400만달러를 제시함. 다른 중국 조선소의 연초 계약대비 +20% 상승한 수준임. (코리아 쉬핑가제트)

총 사업비 3.7조 '역대 최대 우주사업' 한국형 GPS 본격화

2035년까지 3.7조원을 들여 위성 7대를 우주에 쏘아 올리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GPS)가 본격화됨. 2027년 1호기 위성 발사, 2034년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임. (아시아경제)